

이재명 “尹 대통령, 오염수 우려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포한 것”

전남 무안서 최고위 열어...오후엔 목포서 규탄집회 이재명 “정권 심판 위한 국민 항쟁 선포해야 할 때” 박광온 “수산업계 오염수 피해 대책 마련 주도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의 텃밭인 호남을 찾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연설회 발언을 거론하며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국민과 싸우겠다고 한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무안군에 있는 민주당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민을 대리해야 할 대통령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국민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민의힘 연설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이들을 두고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섬도 잘

못 하는 미개한 사람 취급하면서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포한 것 아닌가”라며 이 발언을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했다.

이어 “어민들은 바다 나가는 게 공동묘지 가는 것 같다고 한다. 국민 우려는 100이 아니라, 1000, 1만을 넘어 부지기수”라며 “이제는 국민들이 정권 심판을 위한 국민 항쟁을 선포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가 30년 동안 계속될지, 300년 동안 계속될지 아무도 모른다”며 대한민국 대표로서 당당하게 일본에 오염수 투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어민, 수산업자들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점검 시스템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시행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마음 놓고 수산물 소비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입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수산업계의 피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앞장서고 또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수산물 60% 이상이 전남에서 생산된다. 김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생산량이 전국 95%를 점한다”며 “어가와 어업 종사자 수도 전국에서 제일 많다. 그만큼 전남의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과 전남도민의 걱정과 분노가 크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업계 피해 대책 논의에 나서는 한편 오후에는 목포역 광장에서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를 할 계획이다.

이는 전날까지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민주당 위크숍 이후 첫 현장 행보다.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호남에서 현장 최고위와 규탄 집회를 통해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대여 투쟁 강도를 높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내 최대 수산물 생산지인 전남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돼 현장을 찾게 됐다”고 덧붙였다.



변용일기자



국민의힘, 지도부 오늘 전남서 최고위원회

순천만국가정원서 전남 현안 점검

국민의힘 지도부가 31일 전남을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를 갖고 전남지역 현안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한다.

30일 국민의힘 전남도당에 따르면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31일 오전 순천만국가정원을 방문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전 10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노관규 순천시장으로부터 국

제정원박람회 진행 상황을 듣고 관련 내용을 점검한다.

이어 오전 10시30분부터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

최고위원회의에는 전남도 박창환 정무부지가 참석해 전남지역 현안을 건의한다.

김기현 대표가 올해 3월 취임 후 전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순천=김승호기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2차 시·도 대표회의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영광서 개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2차 시·도 대표회의가 지난 29일 영광문

화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영광군의회의

장)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시·도 대표회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서동욱 전라남도의회 의장,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 등 16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한민국지방행정봉사상 시상, 개회사, 환영사 및 축사, 시·도 대표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광군의회 김한균 부의장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대한민국의정봉사상을 수상했고,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회의 활동사항을 청취한 뒤 파크골프장 활성화 촉구 건의문 등 3건을 심의·의결했으며 그 결과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전남대표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발전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왔으나, 아직은 아쉬움이 크다.”며, “지방의회 자율성을 제약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